Constant Structure Voicing의 기초적 활용 연구 -McCoy Tyner의 'Passion Dance'를 중심으로-

김성배*
*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
e-mail:vianmusic@chungwoon.ac.kr

Research on Basic Application of Constant Structure Voicing - Focusing on McCoy Tyner's 'Passion Dance'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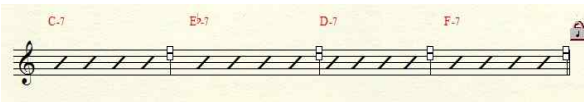
Sung-Bae Kim*
*Dept of Applied Music, ChungWoon University

요 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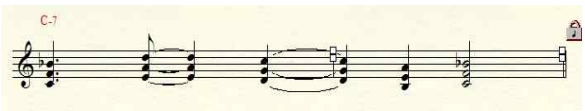
Constant Structure는 Non-Functional Harmony로써 현대 재즈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. 본 논문에서는 McCoy Tyner의 'Passion Dance'에서 Constant Structure Voicing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분석하고, 이를 토대로 Constant Structure Voicing의 기초적 활용 방법을 연구한다.

1. 서론

Constant structure는 세 개 혹은 그 이상의 같은 코드 타입(chord types), 보이싱(voicings), 혹은 멜로디의 음정(melodic interval)이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. 이것은 기능 화성(functional harmony) -키 센터(key center)와 연관이 있는 기능(function)으로부터 온 화성 진행- 이 아닌, 비기능 화성(nonfunctional harmony)의 일종으로 현대 재즈(contemporary jazz)나 퓨전 음악(fusion)에서 주로 많이 사용된다.



[악보 1]



[악보 2]

[악보 3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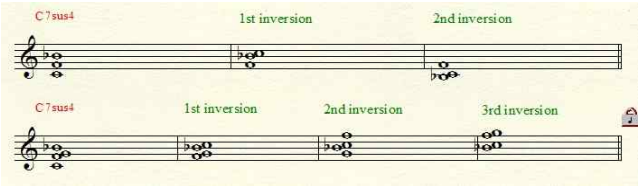
[악보 1]은 같은 코드 타입이 연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. [악보 2]에서는 같은 구조의 보이싱이 연속적으로 사용된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, [악보 3]에는 같은 음정으로 harmonize된 멜로디가 연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. 이 모두가 constant structure가 사용된 실례이다.

본 논문은 맥코이 타이너(McCoy Tyner, 1938~)의 1967년작 <The Real McCoy>에 수록된 'Passion Dance'를 텍스트로 살펴보면서 [악보 2]의 Constant structure voicing의 초보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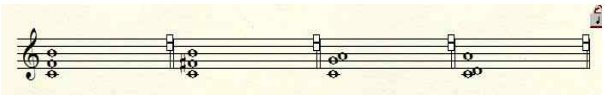
2. 본론

2.1 Constant Structure Voicing의 종류

어떤 구조의 보이싱이라도 연속적으로 사용되면 constant structure voicing이라고 할 수 있으나, 현대 작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이싱은 아래와 같은 4도 보이싱(4th voiving)과 그 자리바꿈들이다.



[악보 4] 완전4도 보이싱과 그 자리바꿈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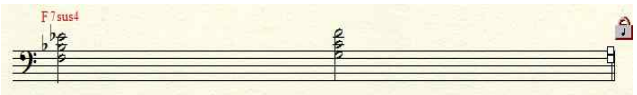


[악보 5] 그 외의 많이 사용되는 constant structure voicing

2.2 맥코이 타이너의 'Passion Dance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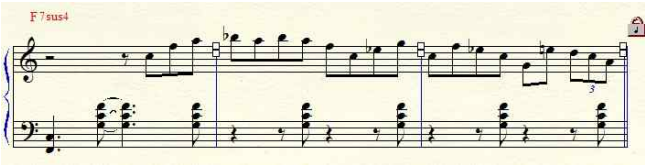
재즈 피아니스트 맥코이 타이너는 1960년부터 1965년동안 활동한 존 콜트레인(John Coltrane) 사중주의 피아니스트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. 또한 왼손의 4도 constant structure voicing을 가장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유명한데, 대부분의 재즈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들이 4도 보이싱을 공부할 때 교과서처럼 여기는 곡이 바로 그가 작곡한 'Passion Dance'라는 작품이다. 4도 보이싱은 사실상 드뷔쉬를 비롯한 인상주의 클래식 작곡가들이 이미 사용한 것으로서 맥코이 타이너는 이를 재즈에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인물이다. 이 곡은 4분의 4박자, 총32마디의 업템포 스윙곡(up-tempo swing)으로 F7sus4, Bb pedal, C7#11의 화성진행으로 이루어져 있다. 솔로 형식(solo form)은 F7sus4 한 코드의 열린 솔로(open solo)이고, 이 논문은 솔로 부분의 왼손 보이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.

2.3 화음 안에서의 왼손 4도 보이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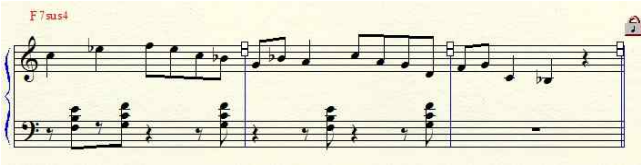


[악보 6]

맥코이 타이너가 이 곡에서 화음 안의(inside harmony) 연주를 할 때 거의 [악보 6]의 두 보이싱을 사용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. 이 두 보이싱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음은 F Mixolydian 모드 안에 있으며 각 음정은 완전4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. 맥코이 타이너는 이 곡에서 화음 안의 연주를 할 때 [악보 7]에서와 같이 위의 한 보이싱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, 장2도(Major 2nd) 간격의 두 보이싱을 이동하는 연주를 들려준다([악보 8])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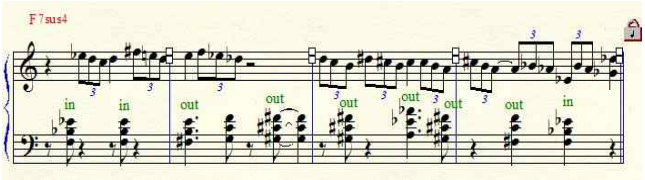
[악보 7]



[악보 8]

2.4 화음 밖에서의 왼손 4도 보이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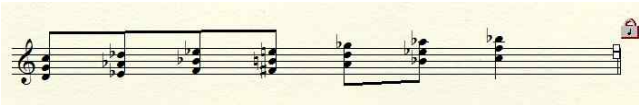
그렇다면 소위 하모니 밖의(outside harmony) 사운드를 내기 위해 4도 보이싱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지 맥코이 타이너의 연주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.



[악보 9]

[악보 9]에서 왼손 보이싱을 보면 in에서 시작하여 F7sus4 화음 밖의 음들로 구성된 4도 보이싱으로 out했다가 다시금 화음 안의 보이싱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. 이동하더라도 보이싱의 구조(structure)는 일관성(constancy)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오른손의 솔로 라인은 왼손의 움직임에 따라 함께 화음 밖으로 이동하기도 하고, 왼손의 이동과 상관없이 화음 안에 머물러 있기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. 베이스 음계가 F 조성(tonality) 안에 머문다고 가정한다면 이 두 경우 모두 화음 밖의 사운드를 내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. [악보7]의 왼손 보이싱들의 경우 정확히 그 구조가 동일하지는 않으나 모두 유사한 4도(완전4도 혹은 증4도) 보이싱이라고 할 수 있고, 이렇게 함께 사용되어도 무방하다.

3. 결론



[악보 10]

4도 보이싱의 top-note가 C altered 모드(mode) 안에서 이동한다면 [악보 10]과 같을 것이다. 밑의 두 음이 모드 안에 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싱의 가장 위의 음(top-note)이 mode 안에 있는 한 이 보이싱들은 거의 화음 안에 있는 것으로 들리고, 서로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균형감 있는 사운드로 들리는 효과가 있다 -물론 세 음 중 한 음만이 모드 안에 있는 것보다 세 음 모두가 모드 안에 있다면 좀 더 화음 안의 사운드를 들릴 것이다-. 대부분의 피아니스트들은 하모니 안에서 constant structure voicing을 이동할 때 이와 같이 생각한다. 다시 말하면 보이싱의 가장 위의 음이 화음 안에 오게 하면서 나머지 아래 두 음은 동일한 구조로 배열하는 것이다.

이번에는 같은 보이싱을 [악보 11]과 같이 규칙적인 음정으로 이동해 보자.

[악보 11]

마지막 코드는 top-note가 화음 밖의 음으로 화음 밖의 사운드를 낼 수 있다. 그러나 4개의 보이싱을 같이 사용할 경우 보이싱이 동일한 구조라는 사실 외에도 단3도라는 일종의 패턴을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사운드를 낼 수 있다.

'Passion Dance'의 솔로는 한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. 그렇기 때문에 화음 안에서만의 솔로는 그 표현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. 반음계주의(chromaticism)에 입각, constant structure voicing을 이용하여 화음의 벽을 넘어 보다 확장된 연주에 다다를 수 있다. 4도 보이싱의 효시가 된 이 연주는 역사적으로 이 후 모던 재즈 연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.

참고문헌

[1] Wayne J. Naus, 'Beyond Functional Harmony', Advance Music, 1998.

[2] David Liebman, 'A Chromatic Approach to Jazz Harmony and Melody', Advance Music, 1991, 2001.

[3] Ludmila Ulehla, 'Contemporary Harmony, Romanticism through the Twelve-Tone Row', Advance music, 1994

[4] Hal Crook, 'Beyond Time and Changes', Advance Music, 2006.

[5] Hal Crook, 'How to Comp', Advance Music, 1995